

## 새 정부 경제정책 과제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전략본부장/상무 유병규

제17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새로운 리더십 아래 실현되기를 바라는 우리 사회의 기대와 소망 중 가장 간절한 것은 아마도 한국 경제가 더욱 활기를 띠며 선진 경제국으로 도약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최근의 대내외 경제 정세를 감안할 때 크나큰 책무를 떠안게 된 새 정부에 대해 연민의 정마저 느끼게 된다. 국내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악화일로에 있어 당장 새해 경제를 운영하며 해결해야 할 벽찬 난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우선 대외적으로는 세계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 양상이 확산될 것이 우려된다. 세계 경기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의 부실 등으로 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세계 물가는 고유가 등에 따라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대외 환경 악화로 국내 수출 경기의 부진이 점쳐지는 가운데 대내 사정도 심상찮다. 국내 부동산 경기가 둔화되는 가운데 금리 상승 등으로 가계 부채 부담은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 물가 역시 오름세를 보여 내수를 진작할 수 있는 정책 수단마저 마땅찮은 현실에 봉착해 있는 것이다.

대외 여건이 어쩔 수 없는 주어진 조건임을 고려할 때 새 정부의 새해 경제 운영은 대내 경제의 성장과 안정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우선 외환위기 이후 부진을 면치 못한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새 정부는 온 힘을 쏟아야 한다. 투자 증대는 내수 부진의 우려를 씻어 줄 뿐만 아니라 고용 증가와 수출 경쟁력 향상 그리고 성장 잠재력 확충으로까지 이어지는 그야말로 우리 경제의 다양한 병증을 단번에 해소할 수 있는 종합 처방전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그동안 기업들이 수익성 위주로 경영을 하여 투자 여력이 충분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고자 하는 갈망이 충만해 있는 까닭에 정책의 실효성도 매우 높은 상황이다.

문제는 기업들의 투자 욕구를 현실화할 수 있는 분위기와 여건을 새 정부가 만들어줄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어디에든 다양한 방법으로 새로운 부가가치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곳에 국내외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보다 자유로운 투자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투자에 대한 다양한 규제와 제약을 과감히 풀어주는 한편 기업인들을 한국 경제 성장의 주역으로 인정하고 보호해주어 경제 분위기를 쇄신하는 것이 새 정부가 새해 경제 성장을 위한 투자 증진을 위해 실천해야 할 첫번째 과업인 셈이다.

새해 경제 운영에 있어 새 정부가 역점을 두어야 할 또 다른 난제는 부동산 경기의 급랭을 막으면서 부동산 가격을 하향 안정화시키는 것이다.

특히 부동산 가격의 급락과 가계 부채 증대가 상호 악순환 고리를 형성하여 가계 부채발 경제 위기 가능성이 커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부동산 대책은 과도한 분양가 상한제의 보완 등을 통해 시장 수급 원리를 바탕으로 부동산 가격의 점진적인 하향 안정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가계 부채 문제의 위험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계 대출 만기 구조의 장기화 전환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국내 금융 시장의 안정도 매우 중요한 새해 정책 과제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의 여파가 확산되고 있어 글로벌 금융 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고 미국 달러화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금융 시장 역시 새해에는 더욱더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커질 위험성이 높다. 국내 유출입 자본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실물 및 금융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안정적인

통화 정책 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감당하기 힘든 주어진 경제 여건 속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서둘러서 않고 기본에 충실하는 일이다. 기대가 크고 책임이 막중할수록 우선 현실 여건을 다시금 면밀히 분석하고 당면 문제점과 근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새 정부는 선거 공약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 관념을 잠시 떨쳐내는 한편, 인기를 얻기 위한 정책을 서둘러 실시하려는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도 단호히 배격해야 비로소 현실을 바로 볼 수 있다.